

기술분석보고서 IT

머니무브(17972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주예령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머니무브(179720)

AI 기반 신용평가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기업

기업정보(2025.11.27 기준)

대표자	이상규
설립일자	2012.02.21
상장일자	2013.07.01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IT, 플랫폼
주요제품	신용평가솔루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시세정보(2025.11.27 기준)

현재가(원)	8,6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11
발행주식수	2,455,804
52주 최고가(원)	15,000
52주 최저가(원)	5,800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이상규, (주)엘리먼트, (주)인텔리안테크놀 로지스, 장용운

■ AI 기반 신용평가 기술 중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기업

(주)머니무브(공시 회사명 ‘머니무브’, 이하 동사)는 202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이후 개인신용대출 연계와 투자상품 중개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매출 비중은 대출 플랫폼수수료 97.5%, 투자 플랫폼수수료 1.8%, 거래소 0.1%, 광고 0.6%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장·소득 정보 기반의 검증기술과 AI 신용평가를 결합해 안정적인 대출·투자 연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금융 AI 기반 기술 고도화와 플랫폼 효율성 강화

동사는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모델, 직장·소득정보 실시간 검증 기술, 자동화 심사·정산 프로세스 등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금융데이터 분석 고도화, 위험분석 엔진 강화, 투자자 노출도 관리 기능 등 플랫폼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금융 AI 시장의 고성장 추세와 함께 데이터 활용 확대,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와 운영 효율성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규제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른 성장 기회 확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 강화와 금융 AI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는 심사·검증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디지털 금융수요 증가, 금융 AI 시장 성장세 등 외부 환경은 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사는 낮은 연체율과 자동화 시스템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시장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서비스 고도화 및 플랫폼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GAAP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0	144.8	-22	-14,721.1	-23	-15,442.2	-358.1	-168.9	91.1	-1,779	572	N/A	8.75
2023	2	1,024.6	-25	-1,531.1	-26	-1,568.7	-331.2	-154.7	150.1	-1,441	320	N/A	26.86
2024	2	19.5	-33	-1,687.3	-34	-1,713.5	-463.2	-198.0	122.3	-1,573	378	N/A	28.31

기업경쟁력

플랫폼 운영 안정성	직장·소득 기반의 검증 구조를 바탕으로 대출 승인·상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체율 관리 체계도 정착되어 있음
데이터 활용 기반 사업모델	금융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대출·투자 연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확장 기반을 보유함
R&D 중심 조직 역량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위험분석 기능 개선 등 내부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며 기술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규제 대응 역량	온투업 제도 정착과 감독 강화 흐름 속에서 내부 심사·검증 프로세스를 제도 기준에 맞춰 개선해 제도권 플랫폼으로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신용위험 예측 알고리즘	금융거래 패턴·소득·건강보험 등 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해 대출 적합도를 정밀하게 판단함
데이터 무결성 확보	이용자 입력정보와 외부 기관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구조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며, 심사 정확도를 유지하는 기반 기술로 활용됨
프로세스 자동화 엔진	대출심사·상환관리·수취권 생성 등 주요 단계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엔진 기술을 적용해 운영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함
투자자 위험 모니터링	투자자의 노출도·회수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플랫폼 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함

시장경쟁력

직장인증심 대출시장 적합성	직장·급여 기반 검증 구조는 직장인 중심의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공하며 시장 수요와 높은 적합성을 보임
온투업 제도권 편입 효과	온투업 제도 강화로 플랫폼 신뢰도와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확대됨
금융 AI 시장 성장 수혜	국내 금융 AI 시장의 고성장 추세에 따라 기술 기반 플랫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심사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시장 관심이 확대됨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성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추세가 플랫폼의 서비스 다양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을 통해 물리적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프로세스 중심 운영으로 문서·업무량 절감 효과 제공 ◎ 서비스 인프라 효율화 및 에너지 최적화를 통해 간접적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 금융서비스 전 과정의 비대면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
S 사회책임경영	◎ 직장·소득 검증 기반 금융서비스로 과도한 대출 유입을 방지하며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 대출·투자 과정에서 고객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 확보(플랫폼 보안 강화)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 운영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절차 유지
G 기업지배구조	◎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 ◎ 온투업 규제 기준에 맞춰 심사·정산·회수 절차를 문서화하여 운영 투명성을 강화 ◎ 외부감사 및 법적 준수사항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며 제도권 금융 플랫폼으로서 지배구조 신뢰성 확보

I. 기업 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투자 연계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동사는 개인신용대출 연계를 중심으로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며, 대출·투자·수취권 거래·광고 등 플랫폼 중심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와 직장·소득정보 검증을 결합한 심사체제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MoneyMove.ai 전환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융기술 기업으로, 개인신용대출 연계 및 투자중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사는 2023년을 기점으로 플랫폼수수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사는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공받은 금융데이터와 자체 구축한 AI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장인 대상 대출상품을 심사·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출·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리금수취권 거래 기능과 광고 서비스 등을 결합해 플랫폼 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며 금융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2012년 간편결제 기업 ㈜엘로페이 설립을 기점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19년 인터파크그룹에서 계열 분리와 함께 ㈜렌딩머신을 설립하며 온라인 기반 금융 플랫폼 사업의 독립적 구조를 구축하였다. 2021년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완료하고, 주요 업종을 온투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정식으로 확립하였다.

2022년에는 On2.ai 기반의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같은 해 플랫폼명을 MoneyMove.ai로 전환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금융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기반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3년에는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 및 신규 대출상품 출시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한 제휴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4년에는 사명을 (주)머니무브로 변경하며 통합 브랜드 전략을 정비하였고, 다년간의 서비스 고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혁을 통해 동사는 간편결제 기반 서비스에서 AI 중심의 온투업 플랫폼으로 발전하며 금융시장 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림 1. 주요 연혁



출처: 동사 브로슈어 및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대표이사 이상규는 지마켓, 아이마켓코리아, 인터파크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에서 대표이사과 사장을 역임하며 다년간 플랫폼·커머스 분야에서 경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2020년 머니무브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업 전환과 플랫폼 고도화를 주도하였으며, 금융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서비스 강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주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 확보한 경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동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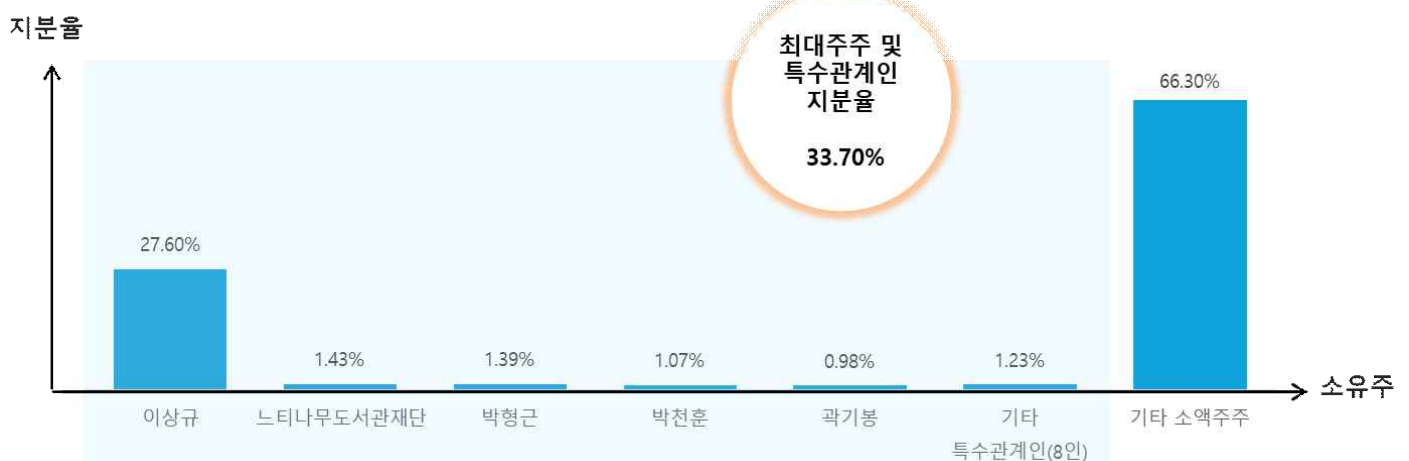
■ 종속회사 및 주주 현황

동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보고서 기준 현재 별도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계열회사 및 출자 법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사는 단일 법인 체제로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렌딩머신 및 (주)렌딩머신대부를 보유하였으나, 2021년 두 회사의 합병·청산 이후 추가적인 종속회사는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사의 최신 대량보유보고서(202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이상규 대표이사로, 677,809주(27.60%)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및 임원·친인척의 지분도 일부 확대되었는데, 느티나무도서관재단 35,039주(1.43%), 박형근 등기임원 34,100주(1.39%), 박천훈 등기임원 26,344주(1.07%), CTO 광기봉 24,111주(0.98%)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임원 및 친인척 일부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소규모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11월 기준 의결권 있는 보통주 총 발행주식수는 2,455,804주로 증가하였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의 합산 보유비율은 약 33.70%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발행주식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출처: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5.11.),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및 매출 현황

동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투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개인신용대출 중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수수료 사업이다. 플랫폼을 통해 대출 심사, 투자상품 제공, 원리금수취권 매매 및 광고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대상 후취 수수료 및 거래소 수수료를 병행하여 플랫폼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광고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층을 활용한 추가 매출도 발생시키고 있다.

동사의 신규 매출원은 AI신용평가솔루션 판매이다. 당사의 검증된 딥러닝 기반의 AI신용평가시스템을 소규모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또 다른 매출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AI신용평가시스템과 대출비교서비스를 관리하는 트래픽 컨트롤러 등 개인신용대출 서비스에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총 198,156천 원이며, 이 중 대출 플랫폼수수료가 193,120천 원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플랫폼수수료는 3,527천 원(1.8%), 거래소 수수료는 266천 원(0.1%), 광고 서비스 수입수수료는 1,243천 원(0.6%)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 플랫폼수수료는 차입자로부터 1~3%의 선취 수수료를 부과하며, 투자 플랫폼수수료는 투자자에게 후취 수수료 형태로 연 1.0%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 방식은 대출 심사 및 연계 절차를 플랫폼 내에서 자동화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며, 투자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원리금수취권 거래는 투자자의 수익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 서비스는 대출 미승인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광고매출 형태로 발생한다. 2023년부터 광고 서비스가 신규 매출원으로 추가되면서 전체 매출 구조는 플랫폼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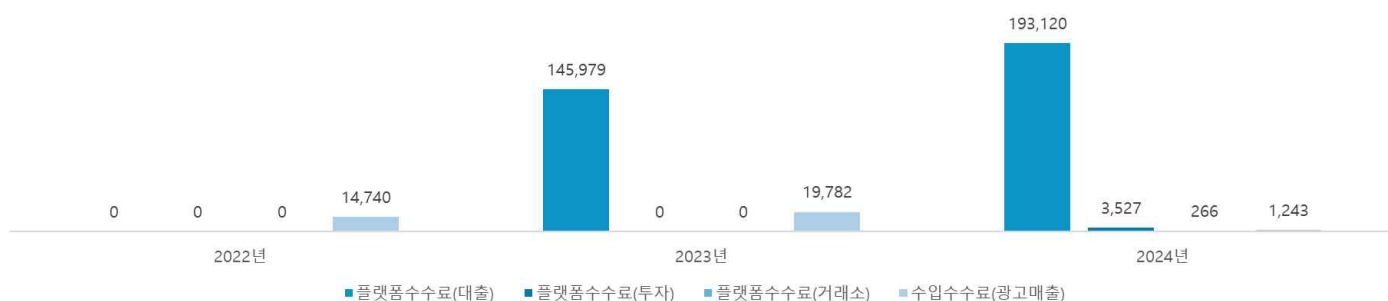
표 1. 사업 분야

사업 부문	품목	매출액(천 원)	매출 비중(%)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플랫폼수수료(대출)	193,120	97.5
	플랫폼수수료(투자)	3,527	1.8
	플랫폼수수료(거래소)	266	0.1
	수입수수료(광고매출)	1,243	0.6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조

(단위: 천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AI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 서비스 산업

금융 AI 시장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예측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머신러닝·자연어처리·예측 분석의 성능 고도화가 금융사 업무 효율성에 즉각 반영되며, 데이터 접근성 변화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는 시장 전반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 기반 위험관리·신용평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금융사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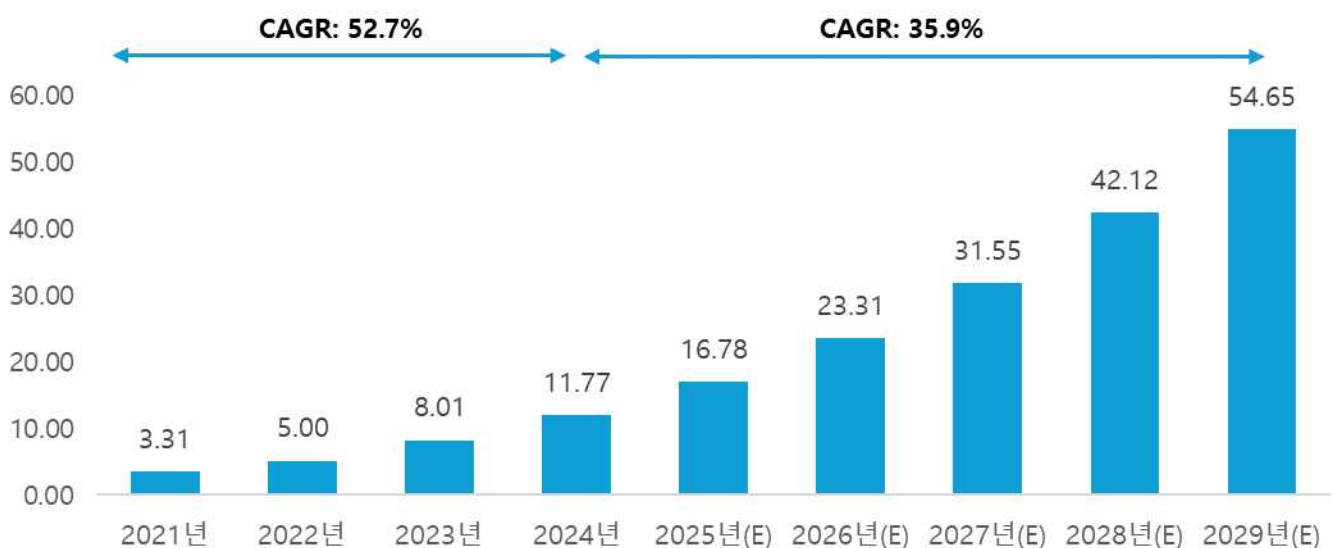
■ 금융 AI 시장 규모 및 전망

금융 AI 시장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예측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산업으로,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 위험 관리, 사기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금융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금융 산업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비중이 높아 AI 기술 도입에 따른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예측 고도화 및 운영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국내 금융 AI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1.7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5.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9년에는 54.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아시아 금융 AI 시장에서 11.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9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머신러닝 모델 정교화, 데이터 소스 통합, 신규 AI 솔루션 출현 등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금융 기관의 예측·리스크 관리·고객 서비스 전반에서 AI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림 4. 국내 금융 AI 시장 현황

(단위: 억 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금융 AI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투명성·공정성 중심 규제 강화 기초

한편,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와 규제기관은 금융 AI의 안전성 확보와 모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 AI의 급격한 확장은 고객 신뢰 · 데이터 편향 ·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직결되므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와 설명 가능한 AI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 부문의 AI 활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 모델링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표준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평가 및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금융 AI의 ‘블랙박스’ 문제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AI 시스템에 대한 설명 요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표준화 ·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AI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 윤리적 AI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 리스크 모델 검증 절차 등이 주요 정책 대응과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기관별 시장전망

2024년 기준 전 세계 금융 서비스 분야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2억 1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2033년에는 257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3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 자동화, 개인화된 금융 솔루션, 고도화된 리스크 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Grand View Research

2025년 기준 전 세계 금융 서비스 분야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19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4년에는 156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26.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Precedence Research

■ 경쟁업체 현황

금융 AI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맞춤형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C3 AI, IBM, Google, Microsoft, FIS, Fiserv, SAP, Zoho 등 주요 기술기업이 금융기관 대상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사기 탐지,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와 고도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금융 AI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금융 기술을 활용하는 여러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플러스, 렌딧, 데일리펀딩, 링크스톤파트너스 등의 업체가 주요 경쟁사로 나타난다. 이들 기업은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온투업 시장에서 자체 신용평가 모델과 대출·투자 연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대상의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경쟁업체
비플러스	2014년에 설립된 업체로, 개인신용 기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운영 - 주요서비스로 개인신용대출 연계, 투자상품 모집, 사회적 금융 기반 중금리 대출 제공 - 온투업 등록 사업자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상환관리 체계를 갖춘
렌딧	2015년에 설립된 업체로, 머신러닝 기반 대안신용평가모델 활용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제공 - 자체 개발한 '렌딧 스코어'를 활용하여 대출 심사 자동화 - 투자자 대상 분산투자 기능과 대출자 리스크 기반 금리 산정 시스템 운영
데일리펀딩	2018년에 설립된 업체로, 부동산 및 개인신용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온투업 플랫폼 운영 - 전담 리스크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투자상품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영업조직은 서울시에 위치하며 다양한 유형의 투자 포트폴리오 제공
링크스톤파트너스	2016년에 설립된 업체로, 직장인 대상 금융상품 중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제공 - 직장·소득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대출 심사 및 투자상품 운영 수행 - 금융위원회 등록 온투업 사업자로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 체계를 갖춘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 분석

주요 기술 경쟁력 및 금융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 추진

동사는 개인신용대출 연계 중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며, AI 기반 신용평가·데이터 검증·자동화 금융서비스를 주요 기술로 확보하고 있다. 머신러닝 모델과 금융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위험 예측력을 높이고 있으며, 직장·소득정보 검증 기술로 심사 정확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출심사와 투자·정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AI 기반 온투업 시장에서 기술 중심의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제품

동사는 개인신용대출 연계를 중심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반 수익모델은 대출 플랫폼수수료, 투자 플랫폼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광고 서비스, 솔루션 공급 서비스로 구성된다.

표 3. 동사 사업군

구분	내용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플랫폼수수료(대출)	머니무브를 통해 대출을 받는 차입자에게 1~3%의 선취 수수료 수취 '23년 3월부터 매출발생
	플랫폼수수료(투자)	머니무브를 통해 연계투자 하는 투자자에게 0.5~1%의 후취 수수료 수취 '24년 7월부터 매출발생
	플랫폼수수료(거래소)	머니무브 플랫폼에서 원리금 수취권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0.5% 수수료 수취 '24년 9월부터 매출발생
	수입수수료(광고매출)	머니무브 플랫폼 회원 중 대출 미승인자를 대상으로 광고 게재 '22년 3분기부터 매출발생
	수입수수료(솔루션 공급)	직장인 신용대출 CSS(Moai) 솔루션 공급 '25년 6월부터 매출발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첫째, 대출 플랫폼수수료는 2024년 기준 193,120천 원(9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장·소득 정보 연동 기반의 검증 시스템과 AI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심사·한도·금리 산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으며, 차입자로부터 1~3%의 선취 수수료를 수취한다.

둘째, 투자 플랫폼수수료는 3,527천 원(1.8%)으로, AI 기반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원리금 수취권 상품에 대한 후취 수수료 구조를 갖는다. 분산투자 기능과 익스포저 관리 기능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거래소 및 광고 서비스는 각각 266천 원(0.1%), 1,243천 원(0.6%)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거래소 기능은 투자자의 수취권 유동화를 지원하며, 광고 서비스는 플랫폼 사용자 기반을 활용한 부가 매출 창출 수단으로 운영된다.

넷째, 직장인 신용대출 CSS(Moai) 솔루션 공급 서비스는 2025년 6월부터 333,300천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당사의 검증된 딥러닝 기반의 AI신용평가시스템을 소규모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또 다른 매출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매출은 2026년부터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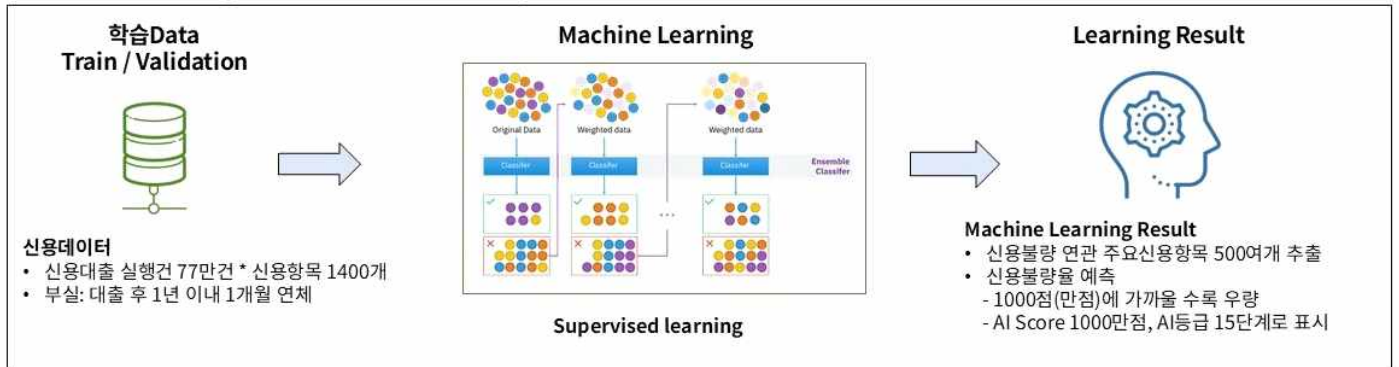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동사는 대출·투자·거래·광고의 플랫폼 기반 매출구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AI 신용평가 기술과 데이터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AI 기반 신용평가 기술

AI 기반 신용평가 기술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대규모 금융데이터를 분석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기술로, 금융거래 이력·소득정보·건강보험 데이터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특히 NICE평가정보로부터 확보한 77만 건 규모의 금융데이터를 학습해 부실률 예측력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CB 점수 대비 더 높은 정확도로 개인신용대출 심사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5. 동사 개발 AI신용평가시스템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CSS Modeling



출처: 동사 제공

■ 데이터 검증 및 리스크 완화 기술

데이터 검증 및 리스크 완화 기술은 직장인 근로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대출자의 허위·부정정보 입력을 방지하고, 초기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기술이다. 건강보험 자격 및 소득정보 연동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자동화 금융서비스 운영 기술

자동화 금융서비스 운영 기술은 대출심사 흐름, 투자상품 제공, 원리금수취권 거래 등 금융 플랫폼 기능을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구현하여 처리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플랫폼 내 모든 심사·연계·정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공급 구조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 투자상품 위험분석 및 포트폴리오 관리 기술

투자상품 위험분석 기술은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AI 기반 신용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로, 개별 차입자의 리스크 수준을 수치화해 투자상품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분산투자 및 노출도(Exposure) 관리 기능을 적용해 플랫폼 내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머신러닝 기반 위험분석 엔진을 통해 투자 성과를 장기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와 금융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데이터 분석 체계를 정비하고 알고리즘 성능 향상을 위한 모델 검증·변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며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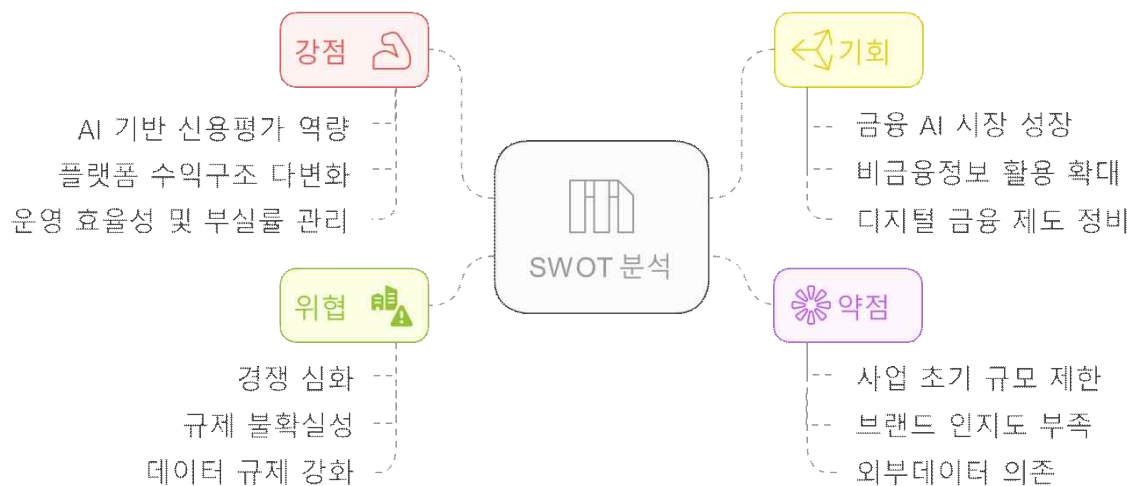
신용평가 분야에서는 데이터 품질 개선, 변수 중요도 분석, 비정형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다각화를 통해 차세대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대출·투자·거래 기능 전반의 처리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리금수취권 관리와 투자자 익스포저 분석 기능을 기술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동사는 금융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온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SWOT 분석

머니무브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AI 기반 신용평가 역량 확보: 대규모 금융데이터와 머신러닝 모델 기반 정교한 리스크 분석
- 플랫폼 수익구조 다변화: 대출·투자·거래소·광고 등 복수 수익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 운영 효율성 및 부실률 관리: 자동화된 심사·검증 체계로 연체율 저하 및 플랫폼 신뢰도 강화

2. 약점 (Weaknesses)

- 사업 초기 규모 제한: 최근 매출이 본격화된 구조로 플랫폼 규모 확대에 시간 소요
- 브랜드 인지도 부족: 대형 핀테크 대비 대중적 인지도와 고객 유입력 낮음
- 외부데이터 의존: 신용평가 및 검증 데이터의 높은 외부기관 의존도로 정책 변화 리스크 존재

3. 기회 (Opportunities)

- 금융 AI 시장 성장: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중심의 AI 기술 수요 확대로 플랫폼 성장 환경 조성
-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대안신용평가 정책 흐름이 기술 기반 심사모델 고도화에 기회 제공
- 디지털 금융 제도 정비: 온투업 제도화로 신뢰성 확보 및 시장 진입 장벽 강화 효과 기대

4. 위협 (Threats)

- 경쟁 심화: 온투업 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핀테크까지 AI 기반 대출시장에 진입하며 경쟁 강화
- 규제 불확실성: 알고리즘 편향·투명성 요구 증가로 기술·운영 규제 부담 확대 가능
- 데이터 규제 강화: 개인정보·데이터 이용제한이 금융 AI 모델 고도화에 제약 발생 가능

IV. 재무분석

최근 3개년 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기 침체로 전방산업 수요가 악화되어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매출 증가 추세

동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2024년 결산 기준 대출 플랫폼수수료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97.5%, 투자 플랫폼수수료 매출이 1.8%, 수입수수료(광고매출)가 0.6%, 거래소 플랫폼수수료가 0.1%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2022년 5월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며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44.8% 성장하여 약 0.15억 원을 시현하였다. 2023년에는 수입수수료 매출 확대와 더불어 차입자에게 1~3%의 수수료를 수취하며 대출 플랫폼수수료 매출을 확보하였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24.6% 증가하여 1.66억 원을 나타내었다. 2024년 동사 매출은 대출 플랫폼수수료 증가 및 투자 플랫폼수수료, 거래소 플랫폼수수료 등 매출 유형 다변화로 전년 대비 19.5% 확대되어 1.98억 원을 기록하였다.

■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개선 노력

2022년 동사는 원가 및 급여,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관관비가 증가하며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11억 원 확대되었으나, 매출액 증가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14,721.1%로 상승하였다. 당기순손실 또한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하였으나, 순이익률은 -15,422.2%로 상승하였다.

2023년에도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 원가 및 관관비 증가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모두 3억 원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24.6% 성장하며 영업이익률은 -1,531.1%, 순이익률은 -1,568.7%로 대폭 개선되었다. 2024년에는 경상연구개발비가 급증하며 영업손실은 8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모두 다소 악화되었다. 동사는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대출과 마케팅, R&D 투자 확대 등 영업초기 단계의 필연적 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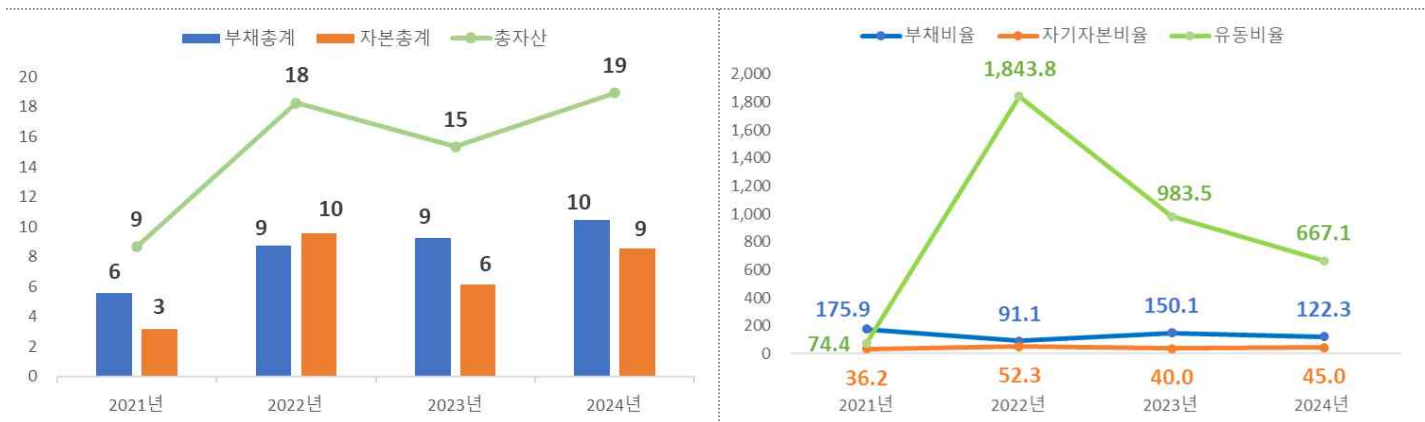
■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2023년 결산 기준, 당사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모두 감소하며 총자산이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전년 대비 860.3%p 하락하여 983.5%를 기록하였다. 유동부채가 0.5억 원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59.0%p 상승, 자본총계가 4억 원 감소하며 자기자본비율은 12.3%p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선급비용 등 유동자산이 증가하며 총자산은 4억 원 확대되어 19억 원을 나타냈고, 단기차입금, 선수수익 등 유동부채 증가로 부채총계는 1억 원 증가한 10억 원을 기록하였다. 유동부채 증가율이 83.7%로 유동자산의 증가율 24.6%를 상회하며 유동비율은 667.1%로 하락하였다. 자본총계가 3억 원 확대되며 부채비율은 122.3%로 하락, 자기자본비율은 45.0%로 상승하였다. 당사는 단기지급능력이 뛰어나고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모두 보수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4.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0	0	2	2
매출액증가율(%)	-84.7	144.8	1,024.6	19.5
영업이익	-11	-22	-25	-33
영업이익률(%)	-18,710.1	-14,721.1	-1,531.1	-1,687.3
순이익	-12	-23	-26	-34
순이익률(%)	-20,422.2	-15,442.2	-1,568.7	-1,713.5
부채총계	6	9	9	10
자본총계	3	10	6	9
총자산	9	18	15	19
유동비율(%)	74.4	1,843.8	983.5	667.1
부채비율(%)	175.9	91.1	150.1	122.3
자기자본비율(%)	36.2	52.3	40.0	45.0
영업현금흐름	-10	-20	-24	-32
투자현금흐름	13	-1	-1	-1
재무현금흐름	2	32	22	36
기말 현금	4	15	12	1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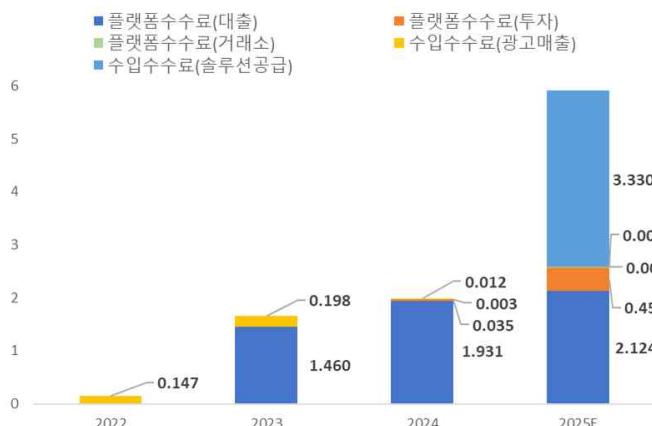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머신러닝 기반 AI 신용평가시스템을 핵심 경쟁력으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플랫폼을 운영하며,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온투업 시장은 제도 시행 초기 위축되었으나,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 투자한도 확대 등이 이루어지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계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신용대출 부문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대출 규모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부실률을 낮추고 투자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중저신용자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지급결제지시업 등 인접 금융서비스로의 확장을 추진하며, 금융 데이터 통합관리 및 자동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내에서 기술혁신형 온투업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실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림 8.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5.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GAAP 개별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0.147	1.658	1.982	5.918
플랫폼수수료(대출)	0.000	1.460	1.931	2.124
플랫폼수수료(투자)	0.000	0.000	0.035	0.450
플랫폼수수료(거래소)	0.000	0.000	0.003	0.006
수입수수료(광고매출)	0.147	0.198	0.012	0.008
수입수수료(솔루션공급)	-	-	-	3.33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규제 변화 대응과 금융 AI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성장 기반 마련

온투업 규제 강화와 금융 AI 기준 변화에 따라 심사·검증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당사는 자동화 심사와 연체율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AI 신용평가와 위험분석 기능 강화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장 성장과 함께 기술 기반 서비스 확장이 향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금융 AI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요구와 데이터 활용 규제 변화는 심사·검증 체계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대출·투자 연계 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른 운용 기준 조정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검증 및 리스크 분석 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다만 온투업의 제도권 안착으로 플랫폼 신뢰도는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당사는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와 심사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단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 AI 고도화와 플랫폼 기능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

당사는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 기술과 직장·소득정보 검증 구조를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원리금수취권 기반의 투자·거래 기능을 강화하며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금융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정교화를 중심으로 차세대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심사 정확도 향상과 부실률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투자자 위험분석 엔진과 자동화된 사후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금융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정책에 맞춰 심사모델 적용 범위도 넓혀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금융 AI 기술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머니무브는 최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 6만 8,225주를 발행해 약 5억 4,580만원을 조달했습니다. 향후에는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강화를 통해 성장 여력이 있으나, 코넥스 시장의 낮은 유동성과 거래량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Chat GPT

주식회사 머니무브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최근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기반의 플랫폼 확장은 비대면 금융 시장 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플랫폼과 서비스 다각화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합니다. 다만, 핀테크 및 대출 시장 관련 규제 강화와 시장 경쟁 심화는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출처: Gemini

머니무브(17972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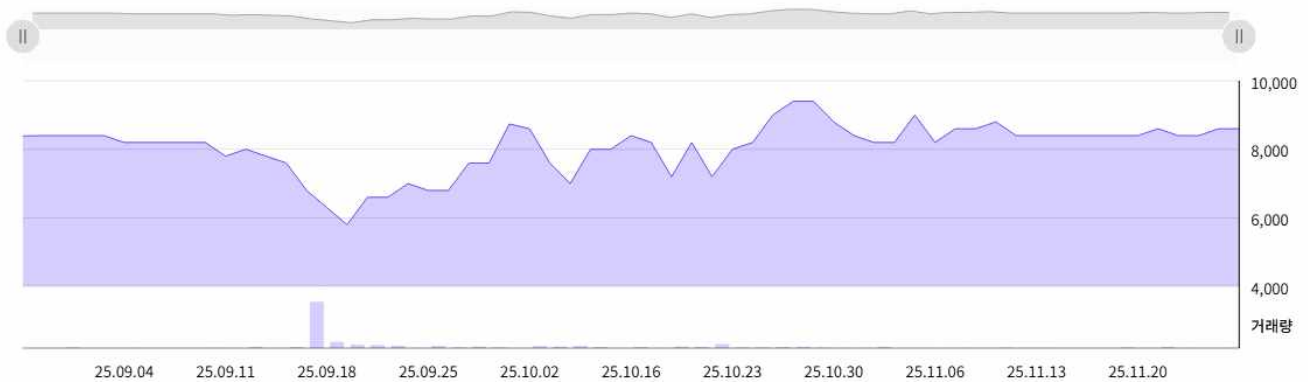
179720 코넥스

기준 : 2025.11.27 | 단위 : 원, 주, %

8,600 ▲0 +-

전일 8,600 고가 8,600 거래량 11 주
시가 8,200 저가 8,000 거래대금 -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5.11.2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 근거: 시장감시 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주)머니무브	X	X	X